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 소식 9월

2012년 9월 통합 241호

발행인 : 광선희 /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mo1@empal.com

- 여는 글 p2
- 기획글 |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대안(1) p3
- 청소년글 | 달밤 트래킹을 마치고 p10
- 교사글 | 달밤 트래킹을 마치고 p13
- 회원탐방 | 서정자 회원을 만나다 p15
- 어린이글 | 삼색수수경단 만들기를 하고 p19
- 활동사진 p20
- 책 이야기 | 가치를 다시 묻다 p23
- 영화 이야기 | '피아노의 숲'을 보고 p25
- 교사 이야기 | 간 큰 우리 이야기 p29
- 회원 글 |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11) p31
- 김옥랑의 농장일기 p33
- 전국연수를 다녀와서 p36
- 성명서 p39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기사 p42
- 학부모알림란 p44
- 지부일정 p46
- 8월 회비 보고 p47



▲ 달밤트래킹

여는 글
함께 읽고 싶은 시

이런 詩

〈최승자〉

평평한 맛있는
어눌한 느슨한
납작한 헐거운
얇은 얇은
오그라든 찌그러진
찌들어버린 빵꾸 난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리듬의
김빠진 맥 빠진
기진맥진한 기고만장을 잊어버린
이런 시!

언젠가 나는 한 시에서
“얘들아, 이게 시냐, 막걸리냐?”라고 쓴 적이 있었다.
지금 이 시 속에, 이 시의 풍경에 주저앉아서,
이런 시나 쓰는 마음의 풍경 속에 주저앉아서
나는 다시 그 구절을 써본다.

얘들아, 이게 시냐, 막걸리냐!

가을의 문턱에서 이런 시라도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냐?” 해보고 싶습니다.

(추천 : 조정화)

기획글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대안 (1)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I. 서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다. 우리나라 고용율을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4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일자리의 질은 더 큰 문제다. 비정규직 900만에 실업자와 사실상의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까지 모두 더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60%가 넘는 1,700여만 명이 불안정노동계층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불안정한 나라는 결코 행복한 나라라 할 수 없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가계부채는 현재 1,000조원에 가깝고, 가처분소득의 153%에 달한다. 가계부채 가운데 특히 306조를 넘어선 주택담보 대출이 경계를 과경으로 이끄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처방을 찾기보다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일시적인 진통제 처방으로 상처를 잠시 덮는 데 급급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정책과 제도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는 데 힘과 지혜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느 청년 블로그의 글 하나를 인용한다. 우리 사회가 성장제일주의로 무한경쟁을 요구할 때 학생, 청년들의 절망과 죽음의 유혹은 깊어지기만 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다.

II.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평가

가. 문민정부

5·31교육개혁은 한국과는 토대가 다른 영국 모델을 가져왔다. 영국에서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이 기획될 당시 공부담 공교육비는 1975년 GDP 대비 6.8%, 1980년 5.7%로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하지만 5·31 교육개혁이 입안될 당시 우리의 사정은 전혀 달랐다. 1994년과 1995년 모두 GDP 대비 3.7%에 불과하였고, 문민정부 당시 내걸었던 5% 교육재정 확충도 달성하지 못했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1990-1992)의 연장도 무산되어 버렸다.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표1>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유지되었다. 이는 충분한 교육재정 확충 없이 과도한 시장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표1〉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재정 변화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규모(A)	6,221,226	6842,6357	7,213,459	7,783,322	8,405,987
교육재정 합계(B)	215,829	281,391	309,628	333,138	352,621
교육재정 비율 (B/A, %)	4.35	4.11	4.29	4.28	4.19

(교육인적자원부, 2005: 김용일, 2006:134에서 재인용)

문민정부 교육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둘째, 임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단기간에 걸쳐 매우 포괄적이고 과감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졌다. 셋째, 교육부 관료가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개혁 추진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교육개혁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로 지적되어 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으로 단기간에 걸쳐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전문가들이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됨으로써 구체적인 방안이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한 채 진행되었다. 셋째, 중대하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임에도 국민과 교원의 의사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넷째,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개혁의 실천의지와 추진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였으며 교육개혁의 실천과 의식 개혁에는 소홀하였다.

나.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교육적 성과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율학교, 자립형 대안교육 확대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 필요성들을 제기하였다. 학교 현장에 발맞추었다는 7차 교육과정도 시행되었고, BK 21 사업으로 대학에 커다란 투자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비록 당대에는 국민적 호응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되돌아보면 이러한 정책 이면에는 많은 어려움이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교육 분야에 대한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첫째, 교육개혁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부재한 채로 교육부 중심으로 교육 관료의 이념이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처음부터 국민의 참여는 가로막혀 있었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나 교육인적정책자문회의의 위상은 매우 약했다. 이들 위원회는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사회나 평생학습사회의 이념과 철학 제시에도 분명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와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의 자문기구 사이의 업무 분담 및 역할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 공교육화 방안은 실현되지 못했고, 7차 교육과정이나 수행평가 도입은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갈등을 빚었다. BK 21은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나 애초의 목표 달성에도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다. 오히려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재정 지원으로 정부와 대학의 관계가 종속적으로 심화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평생학습 사회 구축도 문민정부 보다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둘째,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하향식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민사회 세력 등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지 못했다. 또한 장관의 잦은 교체(7회)와 일방적인 교육개혁 추진으로 철학 부재 및 정책 일관성 결여가 나타났고, 그 결과 교육 관료에 의한 '5·31 교육개혁안'의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강화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당국이 추진한 정책과 학교현장의 실천과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교원단체 및 학교 현장과의 소통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소외된 교육주체의 인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제대로 살려내고, 공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은 아쉬운 점을 많이 갖게 하였다(안선희, 2012: 10-12).

다.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좋은 여건을 가졌던 참여정부는 안타깝게도 국민의 정부와 비슷하게 '열망과 실망의 되풀이' 과정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집권 초기에는 강력하게 있었지만, 집권 후반기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노정되었다. 문제는 이념과 철학이 아니라 실천 상에서 나타났다. 정권 인수 단계에서 제시된 정책내용이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고, 정책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의 부재로 관료조직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여러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성병창, 2003: 25-35).

첫째, 교육혁신위원회(초·중등 교육개혁)와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고등교육 개선 방안)의 역할 분담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

둘째, 정부 초기의 NEIS 문제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국민의 참여에 의해 개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직도 미흡하지만, 교원승진·양성·연수 제도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교육과정 개편에 정치권력의 개입이 축소되었다.

넷째, 결과적으로 후퇴했지만, 사립학교법에 대한 중요성과 일부 사학재단의 독점적 지배구조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안선희, 2012: 14-17).

첫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역할을 분담하였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 설정 및 총괄 점검의 역할을 정부 내에 부재했었다.

둘째,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교육개혁 과정에 확실한 교육개혁 주체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 시기의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관점과 교육자 중심의 관점에 대한 차이와 대립이 지속된 것도 한 몫을 하였다. 이는 정권 내내 그리고 말기까지도 사교육비 폭증으로 나타났다.

셋째, NEIS 등 몇 개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쇄적으로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전 정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은 아쉬운 대목이다. 2008 대입제도 또한 전 국민의 관심사였는데, 전문적인 분석이나 국민적인 논의 없이 이루어졌고, 대학과의 대립과 갈등은 임기 내내 지속되었다. 현장의 반발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도 합리적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되었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 나타나는 교원평가 문제점을 볼 때 유감스러운 지점으로 남아 있다.

라.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교육적 업적은 그동안 4.2% 대에 머무르던 공교육비 비율을 4.8%까지 끌어 올렸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5·31 교육개혁안' 이후 교육시장화의 전면적인 제도화 정책들을 쏟아내고 강하게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학교를 시장의 영역으로 넘기려고 하거나 입학 제도를 시장과 기득권에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이는 '5·31 교육개혁안'을 입안하고 교육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세력들이 정권획득으로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념과 철학, 정책과 실천, 목표와 수단 등에서 어긋난 형태가 많았고, 하향식의 즉흥적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정책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방법을 택해 부작용을 일으켰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질 좋은 우수 고교를 많이 만들면 명문고 입학 경쟁이 완화돼 입시 사교육은 줄고, 고교 간 경쟁은 촉발돼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근본적으로 고교·대학체제와 대학입시 개선을 통해 입시경쟁 자체를 줄여야 사교육이 유발하지 않는데, 정책 방향은 오히려 이를 해결하지 못

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고교서열화가 심화시켜버렸다.

시대정신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중앙집권적 통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했고, 지방교육자치를 퇴행시켰다. 진보교육감과의 대립 속에서 법령을 보수적이고 퇴행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치권을 침해하기도 하였다(김상곤, 2012c).

과도하게 성과와 평가를 연계함으로써 학교 및 교육공동체 약화를 심화시켰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은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대단히 소홀히 다루게 하였다.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규모의 극심한 격차 확대 등으로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과 계층이동의 기회인 교육사다리를 사라지게 한 교육양극화 확대시켰고, 그 이전 정부에서도 없지는 않았지만 교육 양극화를 더 확대시켰다.

III. 2012 정당별 대통령 교육공약

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	약속	실천 방안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1.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학교 자율성 강화, 소질·적성 중심 교과과정 운영 · 소질·능력·적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제공 · 1인 1예술·1스포츠를 학교가 책임지고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상담치료 과정의 대폭 강화
	2. 교원 확충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교사 채용 확대로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으로 맞춤 · '학교교육 통계관리 및 활용'을 통해 행정업무 부담 대폭 축소 · 학교별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
	3. 대입부담의 대폭 감소, 대입혼란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 · 대입전형계획 변경시 3년전 예고 의무화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7.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별 전문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체제 내실화·전문화로 '꿈과 끼'를 살린 성공 지름길 만들기 · 재직 중 학위 취득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국비 해외 유학기회 제공 · '산업기술 명장 대학원'과정 설치 유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	4. 교육비 부담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EBS방송을 태블릿 PC, 스마트 패드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되도록 지원 ·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추진, 대학회계투명성 확대 등으로 등록금 인하 유도
	6. 학벌사회를 타파하여능력중심 사회를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 표준화하여 제시 · 직무능력평가제 단계적 도입
교육의 경쟁력 제고	5.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취업지원시스템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및 학문단위 특성화 추진해 각 대학별 특화된 대학 유도 · 지방대학의 권역별 특성화로 전문분야 인재 양성을 적극지원 · 대학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확대, OECD 평균 수준 GDP 대비 1% 수준 달성 · 대학별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대폭 확충
평생학습 체계 구축	8.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은퇴 이후 중·고령자등 모든국민의 평생교육체제를 강화 · 어르신 친화형 애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인생경험공유

나. 통합 민주당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등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는 주요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 ▲ 블라인드 채용제 : 학력블라인드 채용 ▲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대 출신 고용할당제
- ▲ 입시목적 사교육 억제 ▲ 대학반값 등록금 실현 ▲ 중학교 2학년 전환학년제 도입

□ 손학규

- ▲ 경쟁에서 협동으로 교육의 개념 바꾸기
- ▲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학점교류, 공동학위제 수여를 제도화
- 지방거점 국립대네트워크를 전체국공립으로 확대 : 학생공동상담, 공동학위 등 다양한 수준의 협력체제 구축
- ▲ 자사고 특목고와 일제고사를 폐지
- ▲ 고교 무상교육, 전문대학 등록금 폐지
- ▲ 교육예산 GDP 6%로 확대(현재 4.2%)

□ 김두관

- ▲ 지방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우선 실현 ▲ 민관 합동 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 외국어고·자립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다. 통합진보당

과제 I : 국립대학 중심체제로 전환 - 학벌사회 해체

- 공약 1 -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 공약 2 -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 공약 3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공약 4 -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II : 반값등록금/고등학교 의무교육 - 교육비 축소

- 공약 5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공약 6 - 반값등록금법 제정 - 19대 국회 최우선 법안
- 공약 7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과제 III : 특목고 해체 - 공교육 정상화

- 공약 8 - 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 공약 9 -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 공약10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함양
- 공약11 - 학교자치 실시
- 공약12 -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 공약13 -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핵심 3대과제와 13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부분 공약을 정리하고 있다. 그 중 문재인 캠프에서 진행한 교육부분 정책대화에서 발표한 김상곤 교육감의 '차기 정부에서의 교육개혁방향' 중의 일부이다. 이번호에서는 서론부분만 싣고 다음 호에서 차기정부에서 요구되는 교육개혁방향을 싣기로 한다.)

‘달밤 트래킹을 마치고’

최 유 림 (개금여중 3)

참교육 학부모회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저 ‘봉사’ 라는 말을 하기 부끄러운 ‘봉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스러워 찾아본 봉사활동 중에 우연히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우다 소사’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시설아동들과 같이 산에 오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을 뿐인데 나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재미있었던 추억이었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준 프로그램이었다.

그 때부터 줄곧 참교육 학부모회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달밤 트래킹’ 이라는 봉사활동을 보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달밤을 거닐며 걷는 것이 낭만적이고 힘들지 않아 보였다. 엄마는 장장 10시간 이상을 걷는 이번 트래킹이 정말 걱정된다고 말하셨는데 나는 생각이 달랐다. 10시간이라 하더라도 가족들과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으면 그 까짓, 시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고 같이 가기로 했고, 덩달아 아빠까지도 같이 가게 되었다. 그냥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좋았던 나는 싱글빙글 했지만 엄마와 언니는 출발하기 전날부터 심장이 떨린다고 야단이었다. 나는 달밤 트래킹이 힘든 것은 맞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덤덤히 가족들을 위로했었다.

드디어 달밤 트래킹을 하기로 한 날이다. 집합시간이 5시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4시에 출발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한밤중에 걷는 것을 계속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4시가 되기 전까지 폭 자두였다. 낮잠이 깬 후 가족들 모두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되도록 물을 많이 챙겼다. 혹시나 배고플 때 먹을 초콜릿도 하나씩 샀다. 택시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늦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님 덕분에 일찍 도착한 편이었다. 집합 장소에는 우리 가족과 같이 봉사활동으로 ‘달밤 트래킹’ 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온새미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학생들은 저번에도 트래킹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인지 여유로워 보였다.

달밤 트래킹의 출발지로 가기 위해 부산역에서 기차를 탔다. 입석이었지만 우리 가족끼리 있어서인지 편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그 시간을 만끽했다. 기차에서 내리니 비빔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이번 트래킹을 이끌어주시던 분이 아빠와 오랜 친구 사이여서 나와도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인사도 하고, 서로의 안부도 물었다. 맛있는 비빔밥을 든든하게 먹고 물을 받아서 달밤 트

래킹을 시작했다. 아무래도 선두를 지키는 것이 편할 것 같아 처음부터 앞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 신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계속 발뒤꿈치가 아프기 시작했다. 40분여를 걷고 나서 쉬는 시간이 생겨 신발을 살펴보았는데 신발 뒤가 까졌었다. 발에서 상처가 나서 계속 따라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신발을 바꿔 신자고 했다. 그 말 자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굳이 신발까지 바꿔 신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신은 게 아픈데 엄마라고 안 아프지 않을 리 없었다. 엄마와 언니가 서로 바꿔 신겠다면서 각자의 신발을 내미는 데 정말 고마웠다. 결국에는 엄마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 신발을 바꿔 신었는데 진짜 죄송했다. 오기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뭔가 내 탓인 것 같아 안타까웠다. 괜스레 미안한 마음에 아빠 가방도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에는 힘내라고 노래도 부르면서 걸었다. 힘들고 아플 때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식도 먹고, 한번은 길바닥에서 누우면서 힘겹게 걸었다. 밤을 꼴딱 새서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앉다가 일어서면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했다. 무릎이 육신거리고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무릎 뿐 만 아니라 발목부터 시작해서 허벅지까지 온 신경이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족들 모두가 힘들 때일수록 농담도 더 많이 하고, 손도 잡아주면서 끝까지 마무리 지었다. 도착지점에 다다랐을 때에는 정말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걸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다. 사실 달밤 트래킹이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은 할 수 없었다. 아마 활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해냈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뜻 깊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해서 더 힘이 났고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걷다보면 많은 생각들을 잠재우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이번에 달밤 트래킹을 통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힘이 들 줄은 몰랐다. 그냥 발걸음을 뗀다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위에 모든 것을 담아가게 하고, 공허한 머릿속이지만 왠지 모를 힘으로 꼭 잡아준다는 느낌도 들었다. 게다가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효과도 낸다. 한번쯤 가족들 혹은 혼자서라도 이렇게 걸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물론 우리 가족처럼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그저 어두운 밤에 달을 의지하면서 걷는 것도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준 참교육 학부모회에게 감사하다.

(유림이는 김춘미회원 자녀입니다. 한새학교 우다소사에도 참여했지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눠 좋은 추억이 되었답니다.)

안 해 든 (경기도 안양 양명여고1)

‘달밤 트래킹을 마치고’

권 응 욱 (경원고 교사)



(해든이는 경기도 안양 여고생인데 편국자씨 소개로 부산참학 달밤트래킹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여름이 참 오래 갑니다. 부산에서는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 지금껏 10년 동안 여름 하룻밤을 걸어온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의 연례행사; ‘달밤 트래킹’.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거리를 더하면 우리는 지금 거의 서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무덥고 후텁지근하여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팔월의 여름밤을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8월 4일 토요일 늦은 5시, 출발 장소인 부산역 광장은 정말 지하철 안과는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사람들과 하늘에서 몰아대는 더위 때문에 차라리 옷을 벗고 광장 분수 속으로 뛰어 들고 싶습니다. 2층 대합실에서 부모들의 인사를 뒤로 하고 우리는 5시 45분 삼랑진행 열차에 오르고, 몇몇은 5시 59분 구포역에서 함께 합니다. 입석인지라 자리 주인이 오면 땀 흘려서야 하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기웃기웃 커튼 너머로 낙동강을 내다보며 짧지만 낮은 기차 여행을 맞습니다.

곧 6시 20분, 삼랑진역에 내려 역안내원 아저씨의 친절하 ‘급수탑’ 설명을 들은 뒤, 역광장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먹지요. 이렇게 더운 날에 야외에서 수린수린 밥을 먹고 있는 우리 모습을 역 주변 동네 사람들은 매우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만, 우리가 어디 그런 눈치에 기죽을 위인들인가요. 밥그릇을 물리고 낙동강으로 옮겨 건습니다. 20여분 뒤, 강가에 모여 자료집과 물병을 받고 드디어 밤 8시부터 본격적인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달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낙동강 물살은 눈에 어른어른 하고, 왼쪽 철로에선 속을 훤히 비춘 밤기차가 바람을 몰고 내달립니다. 저 기차를 타고 잠깐 올라온 길을 우리는 다시 걸어서 처음으로 돌아야 하다니! 이런 사서 하는 고생을 왜 신청했을까? 삼랑진에서 부산 화명동까지 낙동강 자전거길을 따라 걸어가는 올해의 트래킹 길은 오르막내리막이 없는 길입니다. 너무 맛있는 길이라 다소 지루할 것 같지만, 오히려 걷는데 힘을 덜어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꾸준한 재잘거림, 함께 노래 부르고, 뒤쳐지거나 앞지르기 않기, 큰 소리로 대답하고 외쳐도 보고...

삼랑진을 출발한 지 두어 시간도 되기 전에 우리는 드디어 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달은 이미 하늘에 올라 저 산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하얀 포장도로를 부드럽게 굽어 돌 때 산모퉁이 나뭇가지 사이로 삐죽삐죽 삐어져 나오는 달을 조금씩 조금씩 크게 만날 때, 우리는 다들 “아~ 달이다~” 고함지르고 맙니다. 열이레 달이라 한쪽이 약간 기울긴 하지만, 우리의 얼굴과 강물과 나무와 풀들을 비추기에는 오히려 달의 밝음이 남아 여유롭습니다.

‘가야진사’에서 먹은 수박맛은 달고 차갑습니다. 달보다 더 둥글고 아삭거립니다. 말랑한 떡은 흘린

회 원 탐 방

땀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다시 걸어야지요. 낙동강 바닥을 퍼 올려 별 이유 없이 만들어진 둔치 길을 몇 구비 더 돌아지면 저어기 멀리 부산의 높고 다다다닥한 불빛이 보입니다. 기차가 다시 횡 지나고 자정을 넘은 자동차들이 눈알 밝히며 바빠 제 길을 지나갑니다. 말이 달리고 마차가 다니고 강을 질러 나룻배가 넘실거리던 시절의 이곳은 한 때 신석기 시대, 혹은 신라의 땅, 혹은 고려와 조선의 영토,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땅을 걷고 있습니다. 졸음을 견디면서 아픈 발바닥을 요리조리 돌리면서 뒤틀린 종아리와 오금을 문지르면서 꼭 가야길 저어기 저 곳까지.

원동을 지나고 물금을 지나고 호포에 가까울 때, 우리는 빵과 우유로 새벽의 허기를 채우고 또 걸어갑니다. 이젠 달밤 트레킹의 끝에 다다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트레킹은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걷는 것이다.” 아무리 거리를 재촉해도 우리에게겐 아직 뒤로 물려야 할 어둠이 남았습니다. 저 달을 머리 뒤로 물릴 때까지 우리는 가야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달리는 자전거꾼들을 만날 때쯤, 아파트의 칸칸에 가끔 불이 들어오고, 먼 금정산 등성이에 희뿌연 여명이 밀려 올 때쯤, 우리는 드디어 여름의 하룻밤 어둠을 모두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강 너머 산이 드러나고 강물이 일렁이고 새들의 흔적이 하늘에 남는 순간입니다. 울리역을 돌아가는 정자에 퍼질러 앉을 땐, 아침 5시 30분, 마침내 멀리멀리 30킬로미터가 훨씬 넘는 시간(?)을 걸어온 겁니다.

올해 모임을 거두어야 합니다. 울리역에서 헤어집니다.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으로가 아닌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그 느낌보다 피로감이 먼저지만, 어느 훗날 이 날을 기억하며 여름 한 밤을 낙동강 곁에서 달과 강물과 풀과 함께 온통 지새웠다는 추억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자연을 아끼고 자연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추억을 스스로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마련되어 있는 자연이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추억을 보살펴주신 여러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삼랑진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불평 없이 자신을 이끌어 준 참가 학생 모두에게 더욱더 감사합니다.

(올해는 온새미 식구들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12년째 달밤 트레킹을 이끌어 오고계신 권용욱 선생님은 채승영 전지부장의 남편이십니다. 답사를 위해 자전거까지 구입하셔서 4차례나 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자전거값은 커녕 답사비조차 받지 못하는데도 오랜시간 함께 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2년동안 권쌤과 한조를 이뤄 달밤을 걸어주신 서정호선생님(신영희회원의 남편이십니다)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움주신 장동제, 이규남, 박선희, 서정자, 김정숙, 김혜례, 김옥랑, 류봉심, 채승영, 김청수, 최은화회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서정자 회원을 만나다

이번 달 회원 탐방의 주인공은 서정자 회원이다.

서정자 회원은 참학에 가입한지 두 달된 신입회원으로, 현재 ‘혼례청’이라는 결혼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태풍 불라벤이 부산에 비바람을 뿌려대던 8월 하순 지부장님, 실장님과 함께 안락동에 있는 ‘혼례청’을 방문했다.

Q: 처음 결혼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어요.

A: 원래 혼례청은 1990년에 설립된 결혼대행 업체였어요. 그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님은 평소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 자주 보던 잘 아는 오빠였고요. 그 분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호기심에 따라나섰는데, 하다 보니 이 일이 정말 재미있었고 제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천성에 친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웃음)

1996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고, 2006년에 혼례청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Q: 혼례청이라는 상호가 웬지 전통 혼례와 관계있어 보여요.

A: 전통 혼례든 서구 혼례든 결혼에 관련된 일체를 맡아서 진행해주는 일을 해요.

제가 혼례청을 인수할 당시 서구식 혼례를 대행하는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통 혼례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 당시 전통 혼례는 가난한 사람들이 합동결혼식을 올리거나 국제결혼 시 호기심에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또 서구식 결혼식에도 식후에 폐백이 있으니 그것을 전통 혼례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깨기 위해 전통 혼례의 고급화, 퓨전화를 시도했어요. 혼례복을 화려하게 바꾸고 가마, 교자를 신랑, 신부가 직접 탈 수 있게 제작하고 결혼 장소도 최대한 예쁘게 꾸몄어요. 또 지나치게 복잡하고 긴 예식도 형식은 지키되 간소화 시켰고요.

그러니까 호텔 예식보다 편안하고 고급스럽다는 반응이 오더군요.

사업 7년째인 지금 이 쪽 업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Q: 원래 전통 혼례는 화려하지 않나요?

A: 원래 우리나라 전통 예식은 소박합니다. 평소 관복을 입을 기회가 전혀 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관청에서 특별히 관복을 빌려주고 혼례를 치르게 했죠. 전 평범한 사모관대 대신 왕실에서 입는 대례복을 신랑, 신부에게 입혔고요.

Q: 일을 하면서 어떤 때 보람을 느끼나요?

A: 전 늘 '비슷한 계통의 일이라도 상조에서 일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일은 사람들이 살면서 맞게 되는 경사스러운 일을 도와주고 기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니까요.

또 팁을 많이 받을 때 보람을 느끼죠.(일동 웃음)

팁이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제가 진심으로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결혼식이 끝나서 절 볼 일이 없는데도 직접 매장까지 오셔서 팁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변친지나 친구들에게 저희를 소개해주기도 하고...고객들과 계속해서 인연을 맺고 이어가는 점에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Q: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A: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 직업은 다른 일과 달리 토, 일, 공휴일이 바쁘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도 아이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엄마가 우리들의 동심을 빼앗아 갔다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일하는 엄마 모습을 좋아하고, 그 때 엄마가 우리들과 놀러가는 대신 일에 전념하길 잘하셨다고 해요.

Q: 인터넷 카페에서 시민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A: 예전부터 친오빠가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해서 오빠와 오빠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노사모에서 활동했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난 뒤에는 봉화 마을에 봉사 활동만 다녔었죠.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찾은 게 '부경아고라'였고 그 곳을 거쳐 지금은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Q: 여러 온라인 단체 중에서 '진알시' 활동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노대통령께서 수구 언론들과 어떻게 싸워왔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대통령을 생각하면 늘 언론 관련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카페는 이름 그대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자는 취지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주력하는 활동 중에 조·중·동에서 제공하는 편협한 정보만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겨레와 경향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시사 잡지를 무료로 나눠 주는 일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매주 수요일 아침 6시, 지하철 동래역 1·2번 출구에서 신문이 배포되는데, 저는 동료 한 명과 함께 그 일을 맡고 있어요.

보통 100~140부 정도를 나눠주는데 지금은 일부러 신문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고한다며 집에서 커피나 음료를 가져와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Q: 참학에는 이규남 부지부장님의 권유로 가입하셨죠?

A: 부지부장님과는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부산 지역 첫 정모에서 뵈어서 얼굴은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두 번째 정모에서 좀 황당한 일이 있어 일찍 자리를 떴는데 부지부장님과 함께 나오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부지부장님께 모임에서의 일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제 불만을 듣고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게 인연이 되어 지금은 가족끼리도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냅니다.

참학 가입은 실장님 말씀대로 부지부장님의 꼬드김에 낚인 거죠.(일동 웃음)

Q: 밖에서 참학을 보실 때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셨나요?

A: 사실 가입하기 전에는 참학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입한 뒤 그동안 참학의 이런저런 활동상을 조금 알고 나니 지금은 대학생이 된 제 아이들을 키울 때 참학을 알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랬더라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내놓고 촌지를 요구하던 선생님, 딸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맡았던 운영위원회 일 등을 의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참, 얼마 전에 있었던 '달빛트래킹'에 참여 했었는데 신선했어요.

Q: 참학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제가 아직은 참학에 대해 잘 몰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저는 참학을 후원하는 회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결혼 초, 제가 남편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공익 단체에 기부하며 살고 싶다는 꿈을 얘기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가장 쉬운 게 돈으로 하는 봉사인데, 현재 제가 전념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이해해 주셨음 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무료급식 일을 주관해 볼 생각인데요...그때 참학에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백색의 아름다운 드레스, 형형색색의 한복과 장신구....

참학 회원 탐방을 시작한 이래 가장 화려한(?) 배경에서의 인터뷰가 끝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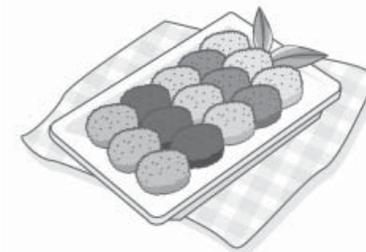
오늘 만난 서정자 회원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는 능력 있는 생활인인 동시에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여유가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서정자 회원님, 급하게 요청한 인터뷰에 흔쾌히 바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소가 가득한 고운 얼굴 참학 모임에서도 볼 수 있길 바라며, 하시는 일이 더욱 더 번창하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 신지원〉

삼색수수경단 만들기를 하고



● 홍 지 수 (모라초등 5)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해주셔서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있었다.

떡의 맛은 카스테라가 가루를 묻힌 것이 가장 맛있고 팔, 속칭 콩가루도 맛있었다.

가루 묻힐 때는 약간 뜨거웠다.

● 서 유 진 (안진초등 5)

오늘의 요리는 삼색수수경단이다.

팔은 고소하고 카스테라는 빵맛과 쫄쫄한 맛이 어우러져서 좋았다.

속침은 달콤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다. 떡은 맛있고 찰진 느낌이 떡을 더 맛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수업에서 발표도 하고 퀴즈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어 먹으면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 조 민 지 (청룡초등 6)

정말...

팔가루, 콩가루, 빵가루에다가 자신이 빻은 경단을 묻히고 담으니 알록달록한 것도 예쁘고

정말 재미있었다!!

앞으로 영양가도 많고 맛있는 떡,

특히 우리 조상님들이 먹었던 떡을 많이 먹을 것이다. 떡이 떡에서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말 재미있는 체험이었고 집에가면 맛도 좋으니 꼭 나눠 먹어야겠다.

활동사진



▲ 청룡초등 수수경단 만들기



▲ 떡만들기가 제일 재미있다는 아이들



▲ 반핵대책위원회 시청앞 농성장 (김정숙, 김옥량, 김혜례, 이성숙의원)



▲ 체험학교에서 박선희, 장현숙



▲ 문재인캠프 정책대화에는 고영호 울산전지부장과 김정숙

활동사진



▲ 전국연수에서 박선희, 편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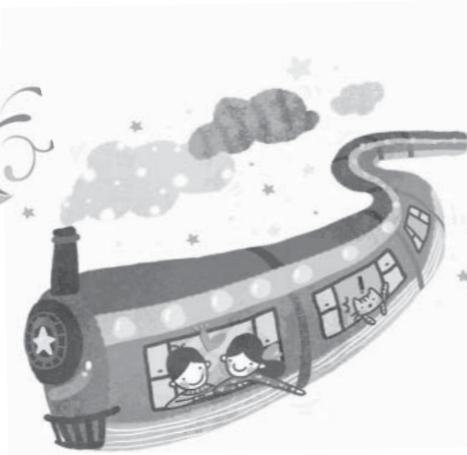
▲ 전국연수에서 '찬호스타일'을 유행시킨 정찬호



◀ 식생활교육 워크샵에서



달밤
트래킹



책 이야기

가치를 다시 묻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혁명을 위하여 /이윤영,윤한결,인디고유스북페어팀-

손재광

S# 2012 인디고 유스 북페어; '공동선을 향하여'

박용준(인디고 편집국장) :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동선이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길 열망하는 젊은 영혼이 모여 함께 공동선을 향한 새로운 꿈의 지도를 그리는 장이 이번 행사의 취지입니다.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우리의 영혼 속에 공동선의 씨앗을 함께 심고 재배해 새로운 인문혁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불의를 방관하는 인류에서 공감하고 공생하는 새로운 인류로 진화의 몸부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s# 2010 인디고 유스 북페어; '가치를 다시 묻다'

윤한결(인크InK대표) : 지난 '2008 인디고 유스 북페어'의 주제는 '인간'이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하나의 개체로서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임과, 그 관계에 대한 고민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윤리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자리였다. 그러므로 행사가 끝난 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관계적 존재라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것이며 그 관계맺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 같은 물음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관계적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윤리적 물음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름 아닌 '가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했다. '과연 삶을 살아가는 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윤영(인디고 유스 북페어 팀장) : 2008년 '인간'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시작했던 기획으로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느낄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우리는 “왜 타인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가치를 다시 묻다'를 기획하면서 왜 옳고 선한 가치들이 현실에서는 그 생명력을 잃고 실현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 '어떻게'하면 그 가치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자 했습니다.

우리는 북아메리카의 '정의와 희망'에서부터 남아메리카의 '사랑과 아름다움'까지 전세계 6대륙의 실천적 지식인과 행동가들을 직접 만나 참으로 '필요'에 의한 문제의식으로서, 절박한 삶의 물음으로서의 가치를 찾는 여정을 했던 것인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들이 돈과 학벌 같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물음



'피아노의 숲'을 보고

- 피아노의 숲을 보는 여러 시선 -

글: 신 광 호

의 여정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진 국가만큼 부유할 수 있다는 것,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성적이 우수한 것만큼 훌륭할 수 있다는 것,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최첨단 과학기술만큼 문명일 수 있다는 것처럼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는, 가치체계 자체가 다양하고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왜 느껴야 하지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쿠바의 '기적의 작전팀' 청년 의사들은 "왜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없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두 질문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삶의 중심에 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 선한 가치를 생각의 영역뿐만 아니라 실천에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장래희망을 '의사'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친다는 말과 함께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연대'라고 답하는 이 젊은 의사들을 통해 사회의 이념과 교육, 그 문화와 분위기가 얼마나 개개인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의 인터뷰 1년 뒤 돌아가신 보스턴대 하워드 진 교수는 교육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가치를 주입받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만을 하는 부조리한 공간으로 변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의 교사들에게 그는 "무엇이 맞고 틀린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이 세계의 공동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시야를 확장하려는 것이어야 하고, 그 필요성의 물음을 던지는 장으로서 저희 '인디고 유스 북페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 2004 인디고 서원 ;아름다운 영혼들의 자유로운 공동체

허아람(인디고 서원 대표) :가까운 미래에 동네마다 빼곡히 들어선 학원과 교습소 자리에 도서관과 작은 책방들이 세워져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옹기종기 나무그늘에 앉아 열띤 토론을 하고, 늦은 밤 별에게, 달에게 자신의 꿈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꿉니다.

또 <탁넛한에서 춤스키까지>에 나오는 전 세계 61명의 선생님들 중 인디고 서원이 뽑은 최고의 영웅에게 한국에서도 부산, 이 조그만 바닷가 마을의 인디고 서원으로 모셔와 어떻게 꿈을 이루셨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렵고 하염없는 꿈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멀고 하염없었다'는 시인의 말처럼 멀고 하염없는 꿈을 그 언젠가 이룰 수 있는 그 날까지...



1. 숲 속에 피아노가 있다? 무슨 사연일까? 신비로운 생각이 든다
아쉬케나지의 피아노 음악으로 편집되었다고 한다. 무료에다가 영화의 전당 야외 상영관은 한 번도 내부에 들어 가지 못하였으므로 확 트인 영화관의 분위기가 궁금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더욱 지리산에서 농사짓고 있는 친구가 부친 병 간호로 잠시 부산에 와 있는 가운데 그가 같이 보자고 요청한 이상 운명이다 여러 인과관계가 엮여 한꺼번에 드러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 고속도로를 차로 달려 영화의 전당으로 향한다.

'영화의 전당?' 서 경식의 서양 음악 순례에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 대해 얘기한 게 생각났다. '예술의 전당'이라는 표현은 일반 명사로 쓰일 수 있지 고유명사로는 부적절하다. 만약에 어느 공연장이 예술의 전당 역할을 잘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예술의 전당

000 회관 이렇게 되어야지 대한민국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 라는 지적이었다. 공감한다 그래서 영화의 전당 역시 어색하다. (그래도 변명의 여지는 있다. 영화의 전당에 가면 씨네마테크도 있고 중극장 소극장 야외상영관도 있어... 이런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이고 보편적 개념의 일반명사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가진다? 그래서 그런 고유명사 쓸 자리에 포괄적 보통 명사를 쓴다? 콜롬버스가 발견도 아니고 신대륙도 아닌데 마치 최초로 찾아낸 것처럼?

이런 것 자체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이미 인력으로 통제하기 힘든 시대 상황에 와 있는 것 같다. 자본과 욕망이 결합되면 브레이크가 파손되고 그 속도가 빨라져 우리는 그 급행열차에서 내리기가 엄청 어려워졌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 없다. 왜 내리려 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한번 죽지 두 번 죽나? 카니발 축제를 즐기고 취생몽사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 성찰이 점차 사라져 간다. (나 역시.....?)

야외 상영관에 들어서니 예상 외로 사람들이 많다. 농부 친구가 내 자리도 미리 잡아 놓았다. 높게 달린 커다란 천장이 물결 모양으로 구비치고 양쪽 트인 빈 공간으로 아파트 불빛들 점점이 에워싸고 있다.

여름밤 좋은 추억이 될듯하다. 좌석에 앉아 후텁지근한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의 수영 요트 경기장의 바다와 수평선과 맞닿은 노을진 하늘이 문득 그리워진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공간이다. 아아! 시네마테크.... 이제는 시원하게 잊어버리자! 快忘!

영화가 시작되어 숲이 나오고 피아노가 나오는데 전학해온 피아니스트 지망생과 학교 음악 선생은 건반을 눌러

도 소리가 나지 않는데 유독 카이라는 이름의 학생만이 피아노 소리를 낼 수 있다. (카이만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영화 속 설정은 그 피아노의 혼이 자연의 자유로운 정신만 받아 들여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더 잘 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은유라고 봐야겠다. <--- 이건 영화 보고 나중에 든 생각.)

숲의 정서에 익숙해 있고 제도권 경쟁에는 관심 없는 카이는 슈헤이와 음악선생님의 권유를 받아 들어 음악 공쿨에 참여한다. 나에게 카이가 공쿨에 참여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조정화씨는 그 과정이 영화적으로 설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와 공쿨의 경험이 카이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 거라 한다, 카이의 입장에서 그것도 타인의 관점을 체득하게 되는 계기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좀 생각해보니 그 말에 수긍이 된다)

인기 장편 만화를 영화로 각색할 때는 영화의 장르에 맞춰 재창조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만화 즐거움을 충실히 옮긴다면 (충실히 옮기기도 어려운 게 우선 그 분량! 만화에서 전개되는 촘촘한 사연들을 제한된 시간의 영화로 각색 불가능하다) 오히려 실패율이 높은 것이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피아노의 재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두 소년 사이에 대립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피아노의 숲 장편 만화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영화에는 우정만 강조되고 갈등 구도는 선명하게 안보이면서 내러티브의 절정을 공쿨에 맞추고 있다. 아쉽다.

그래도 모차르트가 기습적으로 등장하고 개털 만져야 제 실력 발휘하는 여학생, 화장실에서 그 학생을 격려 하는 장면 등은 만화의 코믹한 요소를 잘 살려서 부분적이거나 즐거웠다. 아쉬케나지 연주는 군데군데 짧게 편집되어 들을 수 있고 공쿨 지정곡 모차르트 310번 소나타는 순서대로 각각 초반 중반 후반을 잘라서 학생 세 명에게 분배되었다. 아무리 대가의 연주라해도 부분부분 잘라놓으면 흐름이 끊어져 감동이 반감된다.

이제 이 영화를 보는 여러 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다.
먼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하는 영화평

2.

이시키 마코토의 동명 만화를 바탕으로 두 소년이 엮어가는 우정과 갈등의 이야기

여기 피아노를 치는 두 명의 남자 아이가 있다. 피아니스트 집안에서 태어나 4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아마미아 슈헤이와 동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숲에 버려진 피아노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치는 이치노세 카이. 둘의 피아노는 둘이 태어나고 자란 방식만큼 달라 슈헤이가 악보의 음표를 연주한다면 카이는 숲의 공기를 연주한다. 살롱의 연주처럼 부드럽게 정제된 음과 야외 무대의 연주처럼 가공되지 않은 거친 음. 이시키 마코토의 동명 추천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피아노의 숲>은 도쿄에서 전학을 온 도시소년 슈헤이가 시골에서 나고 자란 숲의 소년 카이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도시와 자연, 재능과 노력의 대립으로 구분된 캐릭터가 우정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상대방의 장점으로 치유한다. 카이의 자유로운 피아노를 부러워하던 슈헤이는 자신의 피아노가 가진 소리에 좀더 애정을 갖고 숲속 피아노에 익숙해져 다른 피아노를 칠 때면 천동소리밖에 못 내던 카이는 많은 사람과 만나며 성장해간다. 착한 스토리에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케이의 피아노 연주는 러시아 출신 천재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의 연주로 채워졌다)의 연주가 어우러져 영화가 편안한 숲속 체험처럼 느껴진다.

연출을 맡은 고지마 마사유키 감독은 원작에 충실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온 사람이다. <애니 매트릭스>로 유명한 매드하우스 출신으로 <피아노의 숲>에 앞서 만든 이시키 마코토 원작의 <하나다소년사> TV시리즈(2002)와 우라사와 나오키 원작의 <마스터 키튼>(1998~99), <몬스터>(2004~2005) TV시리즈는 모두 원작이 가진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충실히 재현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피아노의 숲>도 마찬가지다. 고지마 감독은 일본 시골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 <하나다소년사>가 그랬던 것처럼 70년대 일본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바탕으로 두 소년의 우정과 성장을 그려낸다. 15편까지 출판된 원작 만화를 101분 안에 요약해 넣느라 사건의 전개가 다소 빠르다는 느낌은 있지만 카이와 슈헤이의 만남부터 카이의 첫 콩쿠르까지로 이야기를 한정해 무난한 드라마를 완성해냈다. 소박한 2D애니메이션만이 할 수 있는 감동

3.

씨네21에서 퍼온 글이다. 본문에 15편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확인결과 원작만화가 21권까지 나와 있다. 또 사건의 전개가 빠르다'고 했는데 이야기의 촘촘함을 다 담을 수 없어 사건의 열개만 풀어 놓은 것이지 그걸 빨리 전개된다고 할 수는 없겠다. 사건은 심심하게 여겨진다. 또 우정을 통해 스스로의 결점을 상대방의 장점을 통해 치유해간다는 설명도 영화에서는 잘 드러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심심하다 편안하게 보았다. 소박하고 감동적이다. 서로 다른 평가는 시선의 차이에서 온다.

'관점' '시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제각기 자기의 고유한 개별적 시선이나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선과 관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집단화된 시선의 차용이다. 차용해온 시선을 자기 주체적 시선이라고 믿어 버린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용된 사회의 시선이 있다. 자기의 시선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고 특정한 사회 집단의 시선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관점이 바뀌면 같은 것을 보아도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피아노가 있는 숲을 본다 듣는다 하면 그건 숲과 관찰자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한다.

관찰자는 숲 외부에 있는데 그 지점이 일본의 도시나 다른 나라가 될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2010년대 또는 다른 연대가 될 수 있다. 바라보거나 듣는 포인트는 보려는 대상의 이미지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억과의 '차이'에 있다. 이미지가 반복될 때 차이가 없으면 지루하다.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발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물론 반대로 차이가 없이 단순 반복 되는 걸 편안하게 여길 수도 있다.(그러나 이때도 엄밀히 따지면 극히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를 부정하고 동일성으로 관찰하는 경우도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다. 시골 향수에 대한 공감대는 강력하며 폭이 넓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으로'라는 영화가 그랬고 티비 연속극 '전원일기'도 그랬다. 이렇게 차이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동일성을 근거에 두거나 크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또 다른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이 있다. 영화의 이미지는 현실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영화의 이미지는 현실의 직 간접적 반영이라는 주장. 영화의 기능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야한다는 관점과 개인적이고 소비되는 상품으로 보는 관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선을 열거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자기 주관적 시선에서 매몰되지 말고 외부의 시선, 타자의 시선을 구조적으로 살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하기 위해서다. 동일성을 강조하고 한 가지 관점만이 진리라고 믿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전기료 부담을 이유로 배달부에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시한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었다. 결국 신문 배달이나 음식 배달은 배달하는 신문 배달 사무실과 음식점에서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기로 했다한다, 이게 합리적인 해결 방안인가? 이 모든 기준은 모두 돈으로 환산한다. 인간관계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상품 아닌 것이 없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관점뿐이다.

시선의 차이를 배제하거나 차이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걸 묵살해버리면 독선이 된다. 혼자옳거나 홀로 선하면 안 된다. 함께 선택해야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들은 그 독선을 많은 대중들이 지지하도록 또 마치 그게 민주주의인양 선전하면서 널리 퍼뜨리고 있다. 이건 파시즘의 부활이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재벌 고위 관료등의 한 줌 소수들은 법과 도덕을 장악해 다수파로 행세한다. 시선의 차이를 알 권리로부터 소외당한 많은 서민들은 은밀한 문화적 폭력으로 소수의 세계관 인생관 정치관을 대책 없이 다수의 결정이라고 착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선거에서는 찍어서는 안될 사람을 주변의 여론만 믿고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엉뚱한 사람을 찍게 된다. 대중 매체 영향력 그중 조종동은 편파적 정치의 최전선에 있다. 문화가 권력이 되는 건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무덤에 갇히고 사람들은 쉽게 편파적 관점의 노예가 된다.

시선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아찾기의 첫 출발점이다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사람만이 타자의 시선으로 성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물 되기를 권하는 사회에서 타자나 외부의 시선으로 성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잘 숙고하면 그 견해가 독선적인가 아니면 차이를 긍정하는 건가를 구별해낼 수 있다. 그러면 문화 권력이 조장하는 노예적 굴레에서 탈출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영화 아니라 모든 사물이나 사건에도 다양한 시선이 병존하고 있다. 이 때 어느 것이 옳으나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느 하나를 정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 여러 시선을 동시에 공존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다수결 투표나 가위바위보로 한가지로 결정해야하는 순간은 최악이다. 결과에 승복해야 하므로 힘없는 소수가 억압당해도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동의를 얻었으니까 그 나머지 인권이 무시되어도 그건 당연한 일로 인식된다. 무지개는 일곱가지 제각기의 빛깔을 동시에 드러낼 때 아름답다. 한 빛깔로 통일되면 아름다울 수 없다. 무지개가 아니다. 이제는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도 도롱뇽을 함께 살리는 인본주의라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제3의 소수자의 시선을 찾아 낼 때 자기도 모르게 힘없는 소수자를 억압하던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 새롭게 자기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기 존중감이 생겨 난다. 행복은 자아찾기의 고단함을 외면하면서 얻는 안락함이 아니다. 자기 배려를 통한 자기 존중감 없이 어떻게 행복하다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독단의 시선을 뛰어 넘어야 모든 세상의 존재는 새롭게 깨어난다. 영화를 보고나면 그 영화를 보는 여러 소수자들의 견해를 유추해보고 최대한 나와 다른 관점들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러면 영화 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삶과 세상에 대한 깨우침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조정화회원의 남편 신광호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영화글입니다 좋은 글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간 큰 우리 이야기

-나의 부끄럽게 아이 키운 이야기 -

노영민 (신정고 교사)

작은 아이는 문기둥을 두 손으로 붙들고 유치원 안으로 한사코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 조금 더 시건이 든 큰 아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들어가지. 들어가자.” 한다. 이제 다섯 살 아이의 힘이 이리 세다니. 문기둥을 붙잡고 버티기는 힘이 여간 아니다. 손을 떼어 밀어 넣어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유치원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를 설득해 본다. 그러나 아이는 계속 울며 버틴다. 저거 엄마는 나를 믿고 일터로 가버렸고 나도 지금 바로 가야할 곳이 있다. 그렇게 버티기를 10여 분, 아이는 결국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아무리 내 갈 길이 바쁘더라도 그때 나는 왜 아이를 거두어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 넣으려고만 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간 큰 짓을 했을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나는 지금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슴을 친다.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그 동네를 어쩌다 지나갈 일이 있을 때는 고개를 흔들며 그때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는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다. 자식 키우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있다고 나는 그렇게 무모했던가. ‘상처 없는 영혼’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말로 나는 위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말은 어디까지나 힘 있는 자로서의 아버지인 나에게 위로가 될지언정 자기가 원치 않은 일로 상처를 입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아이에게 내가 할 말은 아닐 것 같다. 상처 입은 약자가 스스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아픔으로 부서진 마음이 열린다면 모를까 위로한답시고 힘 있는 자가 먼저 할 말은 아니다 싶은 것이다

나는 두 아이를 키웠다. 둘 다 사내아이다. 아내는 초등교사로 맞벌이를 했다. 그 시절 출산 휴가는 두 달, 아내는 육아휴직을 못 했다. 첫 아이는 함께 사는 우리 어머니가 돌보았고, 터울이 짧은 작은아이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마산에 있는 아이의 고모가 출산휴가 뒤 바로 떼어 1년을 키웠다. 무책임하고 무식한 아버지였다. 나는 그렇

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전혀 생각 못했다. 육아 책 한 권 안 읽은 아버지였고 학교와 전교조 등 외부 생활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있었다. 아니 학교도 핑계고 전교조도 핑계다. 나는 오직 나밖에 몰랐다.

1년 뒤 아이는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많이 커 있었다. 장난감 때문에 형에게 대드는 것을 못 보았고, 엄마를 먼저 차지하려고 형과 싸우는 것도 못 보았다. 작은 아이는 모든 것을 형에게 양보했다. 아니 모든 것에 다졌다. 우리는 아이가 빨리 철들었다고 생각했고 키우기 수월해서 좋다고도 했다. 고모가 어찌 조카를 아무렇게나 키웠겠는가. 하지만 엄마 품과 고모 품의 차이를 아이는 정말로 귀신같이, 본능으로 알아챘고, 그리하여 눈치 잘 보는 ‘애늬은이’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 그 양보가, 그 철든 행동이 속으로는 아이의 울분, 상처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했다. 엄마와 떨어져 있던 그 1년은 엄마로부터 받는 사랑의 느낌을 통해 아이의 자아 형성, 애착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 엄마와 떨어져 지낸 아이는 애착의 대상을 잃어버렸던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다.

백화점에 가서 아이는 물건을 고르지를 못했다. 이것 저것 집어보지만 할 뿐, ‘살래?’ 물으면 ‘아니’ 하는 게 수십 번 이었다. 얼마나 유명 브랜드에 집착할 때인가? 그러나 아이는 애착, 집착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보였다. 오늘도 햇결을질, 그 다음도, 그 다음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나는 어렵듯이 느꼈다. 그즈음 인터넷 쇼핑물을 아이는 자주 들락거리는 것 같았다. 사라 고 했다. 또 ‘아니’ 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러기를 또 수십 번. 저거 형은 자기를 잘 표현하고 필요한 물건을 제때 사고 친구를 잘도 사귀건만 작은아이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 관계 맺기에 서툴렀고 자아 존중감도 극도

로 낮아 보였다.

그즈음 나는 김형경이 쓴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을 읽었고 몇 번이나 목놓아 울었다. 이 무지한 애비가, 준비 없이 무작정 남편이 되고 애비가 된 놈이 한 인생을 망쳐놓았구나. 사후약방문 격으로 책을 읽고 상담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만 위로가 되었지만 아이에게 닿기는 너무 힘이 미약했고 멀기도 했다. 지금 아이는? 모르겠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다가 한 학기 만에 낙향했고, 몇 개월 두문불출, 절대묵언 끝에 어느 날 군대에 간다 해서 갔다왔고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

나의 인생은 아이를 보는 눈, 출산과 육아를 보는 마음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로 나뉘는 것 같다. 김형경과 미셸 오당이라는 프랑스 산과외사와 임종철 선생 등이 쓴 몇 권 책을 읽은 이후와 읽지 않은 이전. 구체 내용은 거의 잊었지만 김형경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 크게 울었던 것이 떠오른다. 마음의 치유를 위해 정신분석 치료를 받지만 바뀌는 것은 5%밖에 안 된다고. 기껏 5%? 나는 절망이었다. 우리 아이가 노력 노력을 해도 기껏 5%밖에 바뀌지 않는다는 말인가? 대학은 사립은 내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읽고 이렇게 위로하셨다. 프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에릭슨도 있다고. 에릭슨은 인생에 결정적 변화의 시기, 치유의 계기가 여러 번 있다고 본다. 기회는 여러 번 있고 아이는 틀림없이 관찰아질 거니 상심하지 말라고. 그날 나는 선생님 앞에서 또 울었다.

그때 이후 나는 내 주위의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다. 아이는 그러나 시기 놓치면 끝이다. 육아휴직 꼭 해라. 3년이 안 된다면 적어도 1년. 아이는 엄마가 꼭 키워야 한다. 자식 돌보고 키우는 데 절대 간 큰 사람 되지 마라. 아이는 돈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엄마 손으로, 가슴으로 자란다. 직장 생활을 통한 자아 실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자식을 자기 손으로 키워 반듯하게 성장시키는 일보다 더 큰 자아실현은 없다. 그래야 사랑 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존중 받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자아 존중감 높은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등등.

아이 제 엄마 손으로 키워야 하는 거 누가 모르나, 형편

이 안 되니 문제지, 하는 불멘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나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편 복지의 강화, 그 중에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최우선 실현이 필요하다. 경제 활동 여성을 지원할 보육 시설, 유치원 시설 등 아이 돌봄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우선 부모 손으로 직접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유급의 출산과 육아 휴직을 2년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셸 오당의 글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한국과 같이 제약절개 수술 비율이 높은 나라를 자신은 주목하고 있다고. 오당은 제약절개 수술로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충분히 경험 못한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많아지는 한국 사회는 가까운 장래에 범죄 따위로 불안이 가중되는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출산에 대한 의료 기술의 과도한 개입을 사회 불안요인으로 그가 지적한 것을 조금 확대해서, 부모 특히 어머니 아닌 육아에 대한 과도한 외부의 개입 -너무 일찍 아이를 탁아방, 유아원에 맡기는 것 등 -이 사회 불안 요인의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요즈음 ‘묻지마 범죄’에 대해 이런저런 진단과 처방이 많이 나온다. 내가 너무 유아기결정론, 육아환원론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유의 사건의 많은 부분은 사랑과 자아 존중감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근원으로 돌아가면 출산과 육아와 관계가 깊다고 믿는다.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나는 어머니 책임론, 부모 무한책임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들이 출산과 육아의 감옥에 갇혀 지냈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아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의 출산과 육아 관행은 물질 우선의 자본주의, 그것이 극단화한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시장 독재 자본주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니, 돈 핑계, 세금 폭탄 핑계 대지 말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보편 복지의 강화, 그 중에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최우선 실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임종철 선생은 그의 책 <모신(母神)>에서 ‘어머니는 신’이라고 했는데 나는 아이들을 신의 손, 신의 가슴으로 키우지 못한 것을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

- 예산, 결산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다 -



이 규 남

올해도 어김없이 기대 하듯대로 예산편성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예산편성 소위는 각과별 학년별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배분하고 편성하는 한해의 살림을 살 수 있는 중대한 요식행위(?)이다. 수입으로 들어 온 예산은 매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경직성 경비이다. 말 그대로 경직성 경비라 다른 곳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경비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 틈새에서도 돈을 찾아내고 만들어 내야한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 올 한해 학교에서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물어 보았다.

- 1) 학교 내 따듯한 물이 나오는 곳은 행정실 앞에 있는 화장실 한 군데 밖에 없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손을 씻을 곳이 없다. 개인위생차원이나 복리 후생차원으로 봐도 각 세면대마다 온수기 설치가 필요하다.
- 2) 복도에 각각 하나씩 있는 정수기로는 학교 전체 학생들의 음료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체육수업을 마친 후는 더욱 그러하다. 정수기를 여러 군데 확대 설치하면 좋겠다.
- 3) 각 학년 교무실에 있는 복사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데 복사기 교체가 되어야한다. 등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우선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꼭 해드리겠다고 약속부터 했다.

< 각 화장실의 온수기 70만 × 11대 = 770만원 >

< 복도정수기 추가분 8대 렌탈비용 2.5만 × 8대 = 20만원 >
< 각 학년 교무실 복사기 교체 250만 × 3대 = 750만원 >

배관 공사 등 업그레이드 시켜 더 나은 것들로 설치를 해도 2000만원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되었다.

이것들 만이라도 학교에 꼭 설치하는 것이 운영위원으로써 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의 몫은 한다고 마음먹고 예산심의를 시작했다.

계수조정이 시작되어 각 부별 요구액을 기초해서 살펴 보기 위해 전전년예산서, 전년도예산서, 올해 예산서 세 가지 예산서를 탁자위에 펴 놓았다. 그것을 본 행정실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

행정실장 : “위원장님,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 작년과 재작년 예산서가 왜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재작년 예산은 위원님이 운영위원 하시기전인데요.”

이규남 운영위원 : “실장님, 예산편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재작년 예산서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행정실에 부탁을 해서 예산서를 받았습시다. 그래야 올해 예산을 좀 야무지게 짤 수 있지 싶어 그랬으니 별 이상하게 생각지는 마세요.”

각 부별 예산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내가 복사기에 대한 필요 예산을 설명을 하니 그때부터 또 그 소리가 나온다.

행정실장 : “위원장님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하려면 돈이 꽤



8월 5일 꽃 이야기

신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꽃을 한 가지씩 창조했다고 한다. 내가 만약 신이었다면 몇가지 꽃을 창조 했을까 상상 해본 하루였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고구마꽃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구마꽃이 피면 길하다는 이야기니 기분은 좋아지네요. 우리 텃밭에도 그 고구마 꽃이 피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그리고 열심히 과정을 지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기쁨이 오기를 이른 아침에 기도 했습니다.

박꽃도 셀 수 없으리만큼 많이 피었구요, 박도 조롱조롱 열렸어요. 꽃피는 자리마다 맏히는 열매를 보며 식물은 한 웃음마다 튼실하게 열매를 키우는데 나는 헛된 웃음으로 산 것 같아 부끄러웠네요.

호박꽃도 나이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뻐보이는 것은 호박의 구수함을 알아서 그렇겠지요 어릴 때 여름엔 쌀보다 호박을 주식으로 먹었던 기억 때문에 멀리했던 마음이 다시 자연으로 가까워진다는 증거겠지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호박은 텃밭에서는 조금 고민해야 할 작물이에요.

호박을 누가 못생겼다 했나요? 모두 반성합시다, ㅎㅎㅎ

가지, 토마토, 콩, 고추, 수박, 모든 작물들은 이 더위에도 꽃을 계속 피우고 있어요.

토마토가 지금까지 수확한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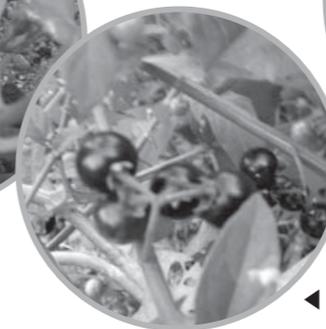
텃밭을 열심히 가꾼다고 자연이 준 선물 까마중도 있어요.

허브 꽃이 가득 피어서 밭에서 나는 오이, 토마토로 야채샐러드 한 접시로 몸이 즐거웠네요. 참학 달빛걷기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이 제일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세상은 꽃이 있기에 웃을 수 있고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를 위해 나누는 마음이 가장 이쁜 꽃이라고 주장 하면 안될까요?



▲ 고구마꽃



◀ 까마중



▲ 호박꽃



▲누렁호박으로 키우는 우리밭에서 제일 큰호박

드는 데 그렇게 쓸 돈도 없을뿐더러 한꺼번에 그런 곳에 돈이 들면 정작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모자랍니다. 뼈뚫한 학교 예산으로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규남 운영위원: “실장님,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입만 열면 학력신장인데 교사들이 학습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꼭 복사기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복사기가 고장나서 학습자료를 못 만든답니다. 근데 복사기를 못해주신다니 무슨 말입니까?”

행정실장: “위원님,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우리 학교는 4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때 바꾸도록 하죠.”

이규남 운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담당자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초.중등 학교보다 복사기 사용을 많이 해야 하는 고등학교에도 내구연한을 똑같이 적용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구태여 내구연한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운영위에서 결의하면 복사기 교체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실장: “그렇지만 학교에 급하게 쓰여 할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규남 운영위원: “실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학교가 학력신장 말고 더 급한 곳이 어딴니까? 특히 학력신장 땀에 위원님들 이해하시라고 했는데 도대체 아이들 수업 자료를 못 만든다고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데 그럼 이것 말고 진짜 급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단 한 가지라도 말씀을 하시면 내가 수공을 하죠. 학습자료 이상 급한 곳이 어딴니까?”

그것으로 각 학년 교무실 복사기는 해결했다. 다음 정수기는 금액이 적은 관계로 그냥 통과, 그리고 나서 화장실 온수기 설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행정실장의 눈이 휘둥그레 진다.

이규남 운영위원: “우리 학교는 시설이 낡고 노후 된 곳이라 학교내에 보일러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마다 온수공급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식사 후 양치나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 등을 날씨가 차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도 학생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야 귀찮아서도 핑계꺼리가 있어 더욱 안하겠지요.

학교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개인위생 또한 학교에서 꼭 해야 할 교육이라고 봅니다. 다른건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꼭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실장: “위원님, 복사기는 학습준비물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온수기는 예산이 많이 들고 시설도 해야 되는 건데 시설비 예산으로 내려온 게 없어서 이걸 다음에 교육청에 예산 신청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지적 받게 됩니다.”

이규남 운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수입란을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매점 임대료 1900만원, 식당 사용료 1200만원 이라고 있죠? 이 돈은 우리 아이들이 식당을 사용하고 매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아이들 말고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동안 이 돈을 엉뚱한 곳에 전용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000만원이 넘는 돈이면 온수기는 설치하는 물론 학생 수련회(소풍)때 아이들이 도시락을 들고 오지 않아도 점심을 먹일 수 있는 돈입니다. 축제도 아무지게 할 수 있고 학생 자치 활동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구태여 학교에 징정거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떻습니까? 온수기 설치가 불가능 합니까?”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예산은 통과되었다.



8월 12일 흥부처럼

이번 주 우리를 반겨주는 농장의 주인공은 박이었어요. 주렁주렁 울망졸망 셀 수 없을 만큼 가득했어요. 갈 때마다 풍성히 얻어지는 수확물은 바구니에 가득하고, 눈으로 보는 고운색, 입으로 맛보는 오묘한 자연은 참 신기하지요.

오랜만에 지나간 소낙비로 풀 뽑기가 수월했고 무성해진 고구마순은 뒤집어놓았네요.

오늘 처음 먹어본 박 잎 부침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질감도 맛도 고소해서 오늘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 맛을 알게 해준 조정화님 고마워요.



▲ 온밭에 박이 주렁주렁

8월 19일 보이지 않았던 시계를 찾으며

중독이라는 말은 아마도 끌림일 것이다. 이제 일요일 마다 농장에 가는 것은 습관에서 중독인듯 하다. 일 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만들러 가는 것이다. 농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콩 싹을 틔워 심고 새싹이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잎을 키우며 자라는 모습, 또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려하는 자람을 조금만 도와주니 그들은 어느새 콩꼬투리를 맺고 있었다. 기계로 된 시계로 시간을 재던 딱딱한 순간에서 이제는 자연에서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지력이 생겼다.

일주일 사이에 변하는 작물들의 모습에서 시간의 흐름은 값진 모습이었다. 씨 뿌린 뒤 금세 올라오는 싹들은 저마다의 시계가 다르다. 호박 크는 속도, 고구마 커가는 속도, 가지 커가는 속도, 깻잎 자라는 속도 모든 것이 다 제각기 시계를 지니고 세월을 재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지난 주 까지 빨갛게 익어가던 방울 토마토가 익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 열매가 많음에도 푸른색으로 있는 것이 처음엔 의아 했지만 철을 안다는 생각이 들자 미안했다. 싱싱하던 줄기를 만져보니 엄마의 쭈글쭈글해진 젖가슴이었다. 모두다 익혀낼 힘이 없어 지친 모습이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너희들 스스로 한 번 온 힘을 다해 익어보라고 그 것이 어찌면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었다.

아직은 부모 품이라고 마음 편하게 노닥거리다 제 한 몸 철도 모른 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새 떠나간 빈 자리에 남아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자연은 먹거리 그 너머 삶을 돌아보게 한다.



▲ 일주일만에 올라온 아욱

▲ 걱정했던 콩이 무성하게도

▲ 삶으면 그대로 국수가 된다는 호박국수를 아시나요?

배추모종 (2012년 8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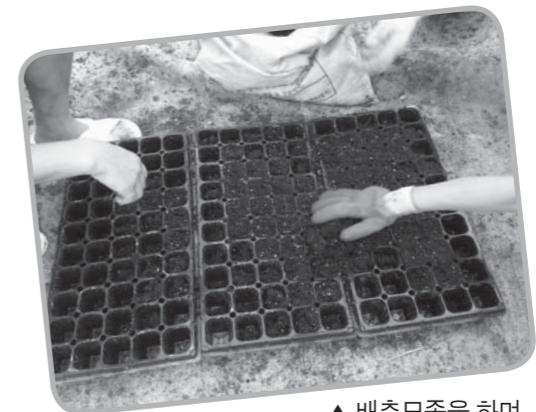
늦더위 햇살이 따끔하다. 식생활교육 1박 2일 연수를 하고도 피곤할텐데 텃밭에 오는 김정숙님 박선희님 고마워요. 지난주 붉은 고추 만들자고 따지 않아서 포기마다 주렁주렁 열렸다. 태풍에 쓰러지면 손이 멀어서 미쳐 세우지 않으면 싹을 것 같아 따서 장아찌를 담그기로 했다.

김장 배추 심으려고 모종도 했다. 청방배추 씨앗으로 모두 잘 싹이 터야 할텐데...

이제 산속의 해는 많이 짧아졌다. 시간은 매일 다른 하루를 만들고 있다. 똑같은 하루는 없는데 그걸 관찰하며 느끼며 사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열무를 심은 지 2주째인데 벌레가 만찬을 즐기고 있어 어린 열무 잎이 망사가 된듯했다. 시장에서 파는 인물 좋은 열무가 어찌 컸는지 짐작이 간다.

좋은 먹거리는 내가 직접 키운거, 그 다음은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키운거다. 그러면 땅도 살아날 것이다.



▲ 배추모종을 하며

“休”



편 국 자

1.

저 한자가 한가롭다 들여다보니 여유롭다.
나무 밑에 기대앉아 넓은 들을 바라본다.
한 여름 도랑냄새 들 내음 들이킨다.
쉬어가는 바람 잡아 여유로움 삼킨다.

참교육 여름연수 지리산자락 수련장이라.
직분이행 부족함에 참가문자 일등내고
“휴”~休~ 한번 몰아쉬고 다녀오자 마음먹고
바쁜 일상 쉬어가라 함에 休 해보련다.

답다답다 불평하며 말하여 무엇하라.
이보다도 어려운 일 많고 많은 세상인데
자연의 지엄함에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시원한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2.

산새가 아름다운 지리산 어귀 돌아드니
흙내음 풀내음 바람내음 모든 것이 여유롭다.
내리쬐는 피약별도 한바탕 소나기로 식혀주고
전남지부 준비한 정성들이 과~연 참학이로다.

자그마한 체구지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강당을 천명있는 듯 메워주는 교수님 구령따라
열씨구 절씨구 하하호호 폴짝폴짝 덩가덩가
모두모두 한마음 되어 작은 올림픽 선수됐다.

부산대표 세명이라 그래도 일당백이니
수려한 외모 빼어난 라인 세련된 말솜씨로
부산사나이 오빠 강남스타일~을 평정하여
참학오빠로 거듭난 부산대표 찬효오빠!

우렁찬 목소리로 멋드러진 사회로
참학 회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집중시켜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천을 하고 돌아오신
부산 스타일의 찬효오빠 최고 MC였네.

3.

틀림없이 “休”가 있는 임원연수였다네 .
아이들은 순천만의 생태공원 탐사로
우리는 강남스타일을 참학 스타일로
격 없이 선 없이 눈물 나게 웃는 하루였네.

무엇보다 전남지부 광주지부 준비하신
프로그램의 준비도 너무 너무 감사하나
이 더운 날 그 비싼 민어회 흥어회
심심하게 준비하느라 진땀 뺐다는 말씀에

가슴에서 짙~전해져오는 정스러운 인심이
어디에서 이런 분들 만나 이런 감성 느낄까?
지리산 임원연수 참가하여 열정으로 푹푹뭉친
참학회원들의 기반으며 살아갈 힘 충전한다.

4.

소박한 사람들의 예리한 질문과 답변 속에
우리 참학의 기조가 짙하게 흐르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 간다 해도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참교육을 실현할찌니

우리가 함께함에 힘을 얻고 기른다.
우리가 함께하니 바뀌지고 변화함이다.
아이들을 우뚝! 서게 하는 힘은
바로 서는 학부모들이 아니겠나.

지리산의 산새와 초록용단 펼쳐진 넓은 들
들이켜도 들이켜도 마시고픈 맑은 공기
전남광주지부 후원으로 참학 가족들의 “休”됨이
진정한“休”되어 지리산정기 전국에 뿔어대리라.



편국잡니다. 참학의 일을 돕겠다고 건방지게 발을 들여 놓습니다. 교육자치부 부장이라는 직함도 떠~억 하니 받아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계가 갑자기 힘들어져 생활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늘 날아 드는 모임문자 보기가 민망합니다. 참여 못하는 미안함이 늘 가슴을 짓누릅니다.

여름 연수가 휴가입니다. 지리산을 정기를 받습니다. 힘을 냅니다. 더위는 이렇게 피합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김정숙실장님, 장현숙님 그리고 박선희 지부장님 장유성차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직분이행 소홀함을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무더운 여름 잘 나시길 기원합니다.

무상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1조 3항). 국가가 학부모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교육비는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도 육성회비(현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다가 1994년부터 폐지했다. 이유는 국가가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 규정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2002년부터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되었다.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부과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한 것처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폐지되어야 하지만 국가는 그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 넘겼다. 헌법에 어긋나는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혔기에 적극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불법 부당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서 앞장선 학부모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운동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기나긴 투쟁을 했다. 멀리 1989년 12월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 참여한 33인의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소송결과는 패소였지만 4년이란 소송기간 중에 학부모들의 지지여론과 압박으로 결국 육성회비는 폐지되었다.

마찬가지로 참교육학부모회는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학부모 부담을 폐지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을 2007년 10월 시작했다. 현재 1차 소송은 2심까지 기각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차 소송은 2심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패소 비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1차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도 패소 비용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겠다는 의미에서 끝까지 법정 투쟁을 계속하여 헌법 소원에도 참여했다. 그 결과 의무교육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마침내 받아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사친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되었다. 학교운영지원비로 걷힌 돈은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을 위하여 채용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용도로 볼 때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징수근거 법률이 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도 “세입상 기본적 교육수입에 해당하지만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고, 조성과 징수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납부도 일괄 자동이체 되고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점”을 들어 헌법 제31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에 위배된다고 판결 했다.

그동안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납부 거부를 하고 5년간 힘겨운 투쟁을 한 학부모 운동의 결과이다. 실제로 납부거부 의사를 밝히고 반환청구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온갖 협박과 비교육적인 행태로 아이와 학부모가 괴롭힘을 당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으면 고등학교 원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협박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납부 안내문을 보내자고 결정한 사안을 ‘재심의’ 요구를 해서 강제 징수를 하기도 했다.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에게는 급식비지원을 끊겠다고 하는가 하면, 납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 통장에서 일괄 인출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납부거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부모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남은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에 맞게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무상의무교육이란 취학의무보다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권익, 복지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한 모든 시설과 운영에 따른 재정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는 뜻이 더 크다. 무상의무교육을 인정한 2008년 12월 16일 교과부는 계층·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색만 냈을 뿐 책임은 지자체에 미뤘다. 지자체의 교육재정이 계속 감축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까지 예산 확보는 않고 지자체에서 재정 마련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려면 재정마련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 학교운영지원비 재정부보까지 떠넘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단위학교로 가고,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현재의 판결을 존중하여 현재 학부모 대신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할 것을 촉구 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선 후보들도 이제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은 철학적이고 의지다. 이젠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소극적 교육복지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이고 복지이며 대의로서 보편적 무상교육이 시행 되어야 한다. 국가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재정 마련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확대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7월 25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교수노조, 동래생협, 부경대련,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교협, 흥사단, 학교사회복지사회, YMCA)
부산시민운동연대(부산경실련, 부산민연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교권보호 정책에 반대하는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교과부의 교권보호대책은 특정교원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대책이다. 교원정책의 실패책임을 학생, 학부모에 넘기지 말라.

교과부는 오늘 학생 학부모의 교권침해 예방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교권 침해의 원인진단을 통한 진정한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교원정책 실패의 문제를 가정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을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비교육적 조치이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교과부의 교권보호 정책을 반대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교원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꼴이다.

최근 교직 만족도가 저하하고 명예퇴직자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 지도권을 봉쇄하고 교육주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말살한 교과부의 교사 통제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또한 교과부의 태도는 경쟁과 평가를 통한 교사의 직무 불안과 스트레스 등 교원정책의 실패 책임을 가정, 학부모, 학생에게 전가하고 교과부는 발뺌을 하는 비겁한 태도이다.

안타깝게도 교사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는 학부모는 분명 있다. 그러나 교육분쟁 해결 과정에서 학교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의하는 열린 자세를 보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이다. 일방적으로 학부모를 비교육적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를 분리시켜 교육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꼼수이다. 교과부는 언제는 교사들이 무능력하다며 질타하더니 이제는 학부모가 폭력적이라며 준범죄집단화하고 있다. 교사,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여기지 않는 교과부야말로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교원정책, 학부모정책을 고민할 자격이 없다.

심지어 교육분쟁 조정과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한다고 했다. 우리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광역 단위, 교육청 등에 그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사와 학부모 외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3의 중재자도 참여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단위 학교의 분쟁을 조정하기에 한계가 명확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과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폐지하는 안하무인격 자세이다. 분쟁 예방과 발생 시 원활한 조치를 하려면 처벌과 징계가 아닌 교육주체의 대화와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교권보호 정책은 교원의 업무상 자율권을 협소하게 확대할지는 모르나 그것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 지도권, 평가권 등 가르치는 소명을 지닌 학교와 교사의 권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학교 공동체에서 배척하는 교권보호는 학부모도 교사도 교과부의 통제에만 끌려 다니는 왜곡된 교원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학생이 존중되는 학교, 아울러 교권의 보호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도 함께 존중될 때 비로소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교과부는 교육주체의 동등한 학교 참여와 소통, 대화와 협력만이 서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8월 2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부산대 원로교수들도 농성

부산대학교 원로교수 10여 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본관 회의실에서 농성에 나섰다. ‘부산대학교의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교수들의 모임’은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장직선제 폐지로) 사실상 교육부가 지명하는 총장이 대학의 자유와 자율을 박탈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성과연봉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교수들 사이의 경쟁은 격화되고 대학 공동체 내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교수들이 대화를 원한다고 찾아와 총장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자리를 마련했으며 총장도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심정적으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2시간 가량 면담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측은 농성 장소가 집무실이 아닌 만큼 이를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후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 행사장 앞에서는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회장들이 모여 총장직선제를 추진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부산일보/ 2012년 8월 30일/ 권상국 기자/ ksk@

부산교육청 “정책사업 절반 통·폐합, 업무 경감”

부산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정책사업의 53%를 통·폐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정책사업 1천26개를 원점에서 재검토, 기능이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540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시범학교, 선도학교, 거점학교와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동아리 사업, 영어수업 능력 인증제, 중등수업 마일리지제, 우수교사 인증제 등 293개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교사연구회, 교육실천 사례 발표대회, 대학생 멘토링제, 각종 박람회 등 138개 사업은 통합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과학탐구 대회, 어린이 학예대회, 교육지원청 지역영재학급 등 109개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2년 8월 30일/



“교사 입장만 반영” 교권보호대책 논란

앞으로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 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갈등의 근원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책임을 학부모에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한 편협한 대책”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린다. 교과부는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 폭행 범죄가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이므로 이 경우는 징역 3년, 벌금 75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이다.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불만을 말해도 학교가 무시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많은데 교과부의 대책은 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으로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판정도 논란거리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해 교권침해 여부와 조치 결정을 두고 학교별 판단이 들쭉날쭉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번 대책으로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해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부산일보/ 2012년 8월 29일/ 강승아 기자 seung@busan.com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고조...수시모집 논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과부-교육감 갈등 확산 = 15일 현재 전북, 경기, 강원, 광주 등 4개 시도·의진보 성향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거부 또는 보류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폭력 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류를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14일 전국 초·중·고교에 발송했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고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위법적 사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위 권고에 저촉되며 학생 당사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입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과부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원을 징계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할 초·중·고의 학생부 기재실태를 조사해 2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 강원, 광주 교육감은 “사실상 기록하라는 지시와 동일하다”며 이를 거부한 상태다.

연합뉴스/ 2012년 8월 15일

학부모알림란

◆ 9월 회원만남의 날 '편백나무와의 하루'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숲에서 느껴 봅시다.

참학 하반기 사업도 논하구요.

- **일시:** 2012년 9월 16일
- **장소:** 법기수원지



◆ 야무진 바자회가 열립니다

이 번 가을에는 야무진 바자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 같지만 집안을 가만히 보면 필요 하지 않은 물건이 넘칩니다.

한 번쯤 필요해서 장만 했지만 별 쓰임이 없는 물건들을 요긴 하게 쓸 수 있는 주인을

다시 찾아주고 소비가 미덕이 아닌 나눔이 미덕인 삶으로 갑시다.

그러면 지구생태에 이쁜 우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집안에 잘 보관 되어 있는 모든 물건을 날개를 달아 줍시다.

- **방법:** 가까이 있는 참학 가족끼리 모아서 사무실로 집합시켜 주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물건을 적극 모아 오세요.
주변에 알찬 물건이 있으면 기증도 받습니다.
- **대상:** 우리가 살아 가는데 필요한 물건이면 다 됩니다.
- **언제 하나구요:** 11월 회원 만남의 날에 할 예정입니다.
- **희망 사항:** 부산 참학 사옥을 하나 마련할 기금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 **부탁 말씀:** 쓰던 물건은 깔끔하고 예쁘게 단장해서 보내 주세요.
바자회를 알차게 하기 위한 좋은 생각도 많이 모읍니다.
아낌 없이 참여해 주세요.
- **사무실에 필요한 물건:** 냉장고, 접이형침대, 전기밥솥, 선풍기, 예쁜간사^^

학부모알림란

〈우다소사 자원봉사학습 프로그램 (2012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고기잡이 체험 원시어업 석방령 체험

2012년 우다소사 3기 9월 봉사학습은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금정구 소재 선아의 집(지적장애아동 생활시설)의 특수학교 혹은 특수학급 초등학생 (3학년~ 6학년)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돌보는 봉사 활동입니다.

남해 흥현 해라우지 마을에서 석방령 체험

바닷가에 경사가 약간 있는 곳을 골라 반원형, c자형으로 돌을 쌓아 울타리를 축조하여 밀물 때 들어와 썰물 때 미쳐 빠져 나가지 못한 고기를 맨손 또는 도구(통발, 반두, 뜰채 등)을 이용하여 잡는 원시적인 어로 형태임. - 주로 멸치, 농어, 망상어, 송어, 전어 등을 잡음. 지역에 따라 독살(주로 서해안), 돌살이라고도 함

- **봉사일:** 9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명륜역 2번 출구 (동래구 보건소 앞)
한새청소년학교 우다소사 봉사 활동 참가자 자부담 20,000원
(참가비 내역: 왕복교통비, 운영비, 지도비, 체험참가비 여행보험 포함)
- **준비물:** 모자, 여벌 옷과 신발, 면장갑, 뜰채나 반두, 수건, 아이스박스(잡은 고기 담을 통)
도시락, 음료수, 간식

〈 자원봉사자 활동 내역 〉

1. 사전 오리엔테이션 (9월 8일 (토) - (봉사시간 2시간 인증)
- 지적 장애의 이해와 장애아동의 특성, 장애아동을 돌보는 방법 강의
2. 봉사활동 - 성실하게 임할 경우 최대 8시간 까지 인증
3. 사후 활동 - 봉사 활동 평가, 활동 인증 사진 제출, 활동 소감문 제출 (2시간 인증)

특전) 우수 활동자는 자원봉사대회에 추천, 우수 활동 소감문은 책자에 게재함.

우수 활동자는 4기 우다소사 활동에 우선 참가 자격 드립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한새학교 사업팀

자원 봉사 신청 : 051- 556 - 1799 (참학 사무실) 문자 접수 및 문의 : 010 - 2803 - 7380 (사업담당자)

※ 참가비 입금 계좌 : 부산은행 078-01-021450-2 (참교육학부모회)



8월 이리렇게 보냈어요

- 8월 4일-5일 달밤트레킹
- 8월 8일 청룡초등 수수경단 만들기 (김옥랑, 김정숙, 김혜례, 장현숙)
- 8월 9일 지방분권운동 회의-정찬호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워커샵-부산일보
식생활교육 부산네트워크 이사회
- 8월 13일 안진초등 수수경단 만들기 (김옥랑, 광선희, 김정숙, 장현숙)
- 8월 18일-19일 전국 연수- 지리산 학생수련원 (곽선희, 편국자, 정찬호)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 연수- 대천 임해교육원
- 8월 20일 임원회의
- 8월 21일 반핵대책위원회 회의-김옥랑
영화소모임- 피아노의 숲
(백미영, 광선희, 김정숙, 김종만, 김동준, 김옥랑, 김혜례, 김영미, 조정화, 신광호)
- 8월 22일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8월 23일 이일권 의원 의정보고 및 평가- 광선희
참여연대 이전 개소식- 광선희
- 8월 25일-26일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자체역량강화를 위한 워커샵- 부산학생교육원
- 8월 27일 모라초등 수수경단 만들기 (김옥랑, 광선희, 김정숙, 장현숙)
- 8월 28일 서정자 회원 탐방(신지원, 광선희, 김정숙)
문재인 정책대화(교육부분)-국제신문
- 8월 29일-30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전국 연수- 천안상록리조트(김정숙, 김혜례, 임영선)



8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류봉심, 허미경, 채승영(2만), 김정숙(2만), 김옥숙(2만), 이금숙(2만), 장선희(2만), 신영희, 광선희, 박성미, 이행봉, 김기영, 조금제, 박은숙, 송경희, 홍동희, 박희옥, 김윤자, 이일권, 공외정, 류정애, 김종철(2만), 윤내경(2만), 윤신옥, 김형선, 최경희(a), 조명숙(3만), 김정원, 문재경(5천), 김은주, 윤연섭, 조석현, 노희정, 하주연, 맹일영, 이미연(2개월), 전순실, 손진숙, 홍정희, 이남숙, 최경희(b), 이희주, 정운숙, 최한, 이재희(5천), 고혜경, 신수자, 최승희, 김현준, 심미숙, 유은정, 김수영, 이혜숙, 양윤자, 김경선, 심성보, 광차섭, 박미순(2개월), 김경희(a), 박무준, 정수련, 황선애, 허운영, 함현주(2개월), 지영경(5천), 김종찬, 황송미, 정동희, 차성환(5천, 2개월), 고창민, 황보덕, 오봉숙, 김동철, 유명희, 김석준, 광태순, 장순옥, 이종명, 장지숙, 임석규, 이영주(2만), 신석열(2만), 김태만, 박유미, 송명희, 광은순, 장유성, 신지원, 이승중, 민문식, 김익수, 이성하, 정재천, 김원재, 장동제, 이규남(2만), 임주연, 송기수, 송철동, 이선애, 김정애, 주우명, 권서용, 배종만, 백미영(5천), 문명숙, 김법기, 최은화, 서인석, 강순금(2만), 임창영, 김정열(5천), 이정형, 강정아, 손건태, 조원국, 남광우, 서권석, 김춘미, 김영희(a, 3개월), 백점단, 안종기, 최정홍, 황은옥(2만), 서정호(a), 문혜정, 장말선, 백성희, 서정호(b), 정찬호, 박경아, 정연재, 우성만, 정명주, 왕병구(2만), 강은조, 서경애, 노기섭, 장현숙, 김영미(a), 김상현, 김현봉, 고내현, 노영민, 부지환, 이재홍, 김혜례, 강재성, 최중수, 박덕수, 문인숙, 이병숙, 윤영근, 권인근, 이미옥, 김성희, 박귀남, 김금련, 김재홍, 성인심, 배문주, 손희정, 권영순, 임영선, 김경희(b), 박준건, 강아련, 김옥랑, 김성미, 이수진, 이혜영, 서석태, 이인경, 조정화, 주정현, 김영희(b), 편국자, 김영숙, 이정인, 최지선, 최점순, 여진호, 조병준, 김동희, 이내훈, 이은정, 노귀선, 석은경, 남경화, 송부희, 함정화, 장정인, 정미경, 정동주, 제진희, 최영순, 양미진, 장은숙, 김은정, 강석희, 김경숙, 김영미(b), 윤송태, 김수진, 이금숙(b), 염상미, 노혜경, 정이덕, 김지원, 서정자(5만), 송언경

■ 8월 결산 보고

수입	지출내역	지출금액	이월금
이월금 5,130,840	중앙 분담금	621,750	5,166,410
회비수입 2,310,000	전국연수여비	151,100	
후원금 70,000	사무실 운영비	135,730	
이자수입 0	연대회의비	230,000	
기타수입 160,000	소식지 발송비	100,850	
수입 합계 7,510,840	소식지 인쇄비	330,000	
	간사급여	500,000	
	사무실 임대료	275,000	
	지출 합계	2,344,430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후원금 계좌번호 101-2001-6612-01 부산은행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 정찬호님이 사무실 선풍기 구입비로 7만원 후원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연수 분담금이 있어 중앙분담금이 많았습니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주요사업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운동
-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 문의상담
-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교육강좌·소모임 활동

전국 각지부별 월례 교육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좌
- ◆ 소모임활동 : 교육문제연구, 역사탐방, 동화모임, 미술모임, 글쓰기, 풍물 등
- ◆ 부모역할 훈련
-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 지부별 월례교육 강좌

출판·홍보활동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은 '학부모신문'발간

-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 신입회원, 임원교육자료집 발간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음 없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야마하피아노 3층)
문의 : 051)556-1799

<http://hakbumo.or.kr>